

## 강원도 관광공예품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이 미 숙 ( Lee,mi-suk )

협성대학교 조형대학원 강사

E-mail : suk881@hanmail.net

강원도는 인문, 지리적 특성이 대규모의 공단 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자원인 수려한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지역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더구나 지자체 실시 이후,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천연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하여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정책인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정서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관광공예품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관광공예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육성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색인어> 강원도관광, 관광자원, 공예품

### 1. 서 론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부를 점하고 있으며, 중서부의 경기도 지방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앙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남한의 북동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지역의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지리학적 특성상 많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개발을 행함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강원도의 총 면적은 26,263km<sup>2</sup>이고 휴전선 이남으로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는 면적은 16,712km<sup>2</sup>로서 남한 총 면적 98,477km<sup>2</sup>의 17%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중 83%에 해당되는 14,030km<sup>2</sup>가 임야지, 경지는 9%에 해당되는 1,490km<sup>2</sup>이며 기타용지가 8%로서 1,374km<sup>2</sup>이다. 이 같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은 교통·통신과 같은 사회 간접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도에 비해 제반 산업의 유치가 불리한 입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여 제반 산업의 유치에 있어서 타도에 비해 원초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강원도의 인문, 지리적 특성이 대규모의 공단 조성을 어렵게 하였기에 일찍부터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자원인 수려한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지역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더구나 지자체 실시 이후,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천연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하여 시도하고 있다.

손재영(1995)에 의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의 소비액 중에서 전체의 약 30%가 관광기념품 구매비로 지출되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광기념품 구매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 소비항목인 숙박비나 식·음료비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각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공예품들이 그 지역의 정서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국의 모든 관광지에서 획일적인 관광공예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광공예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한 관광공예품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이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원도만의 지역적 정서나 특징을 나타낸 상품을 통해 강원도관광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지역 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각 지역의 토산품이나 민속공예품을 관광 공예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토공예품이나 관광공예품에 대한 자료들과 강원도 향토공예품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조사해 보고 이를 토대로 관광상품화를 위한 육성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II. 관광공예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공예의 의의 와 종류

#### (1)공예의 의의

예술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술은 시간예술, 공간예술, 시·공간예술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예술이란 시간 내에 형성되어지는 예술로서 문학과 음악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예술과 상대되는 것은 공간예술로서 공간을 구성의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모든 재료를 써서 구성하는 예

술이다.

회화, 조각, 공예, 건축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공간 내에서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인 까닭에 이것을 조형예술 (造型藝術, formative art)이라고도 한다. 조형예술, 즉 미술은 순수미술과 실용미술로 나눌 수도 있으며 실용미술은 공예나 건축과 같이 실용적 한계를 가지고 인간 생활의 실용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예술이다.(이 경성, 1994 : 266)

오늘날 공예라는 말은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조형물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들의 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도구로서 사람의 창의나 예지를 거쳐서 만들어진 생활용구를 가리키게 되었다. 발달된 현대문명 속에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생활주변에는 수많은 공예품과 그 기능에 따른 공예미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식기, 차 도구 등 도자기를 비롯하여, 옷, 장식품, 운송수단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주변에는 공예품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예란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이 경성, 1994:9)

공예는 인간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인류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므로 그 범위도 넓고 그 재료에 따른 기술도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또 인간의 의식주 전반에 걸친 미의 표현을 꾀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예의 요인으로는 풍토, 재료, 기술, 전통과 문화가 공예의 제작기반으로 존재한다. 이는 공예의 실용적 의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공예의 양식 등 미의 표현유형을 결정한다. 즉, 공예는 두 가지 요소인 미(美)와 용(用)에 의해 성립된다.

따라서 그것은 순수미술과 같은 감성만의 소산이 아니고 지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제1의 조건인 풍토적 조건과 제3의 조건인 재료는 공예의 종별을 결정한다. 이 종별은 재료를 취급하는 기술의 전습법에 따라 결정된다. 풍토가 재료를 놓고 한 지방의 공예제작에 제약을 주는 동시에 그 재료를 자유로이 쓰는 기술을 기른다.

## (2)공예의 종류

공예품의 종류는 재료를 취급하는 기술의 전습법에 따라 결정된다. 즉, 풍토가 재료를 놓고 한 지방의 공예제작에 제약을 주는 동시에 그 재료를 자유로이 쓰는 기술을 기른다.(이 경성, 1994:266)

공예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며, 재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재료는 옛날에는 대부분의 공예품이 자연재료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 와서 천연재료의 감소와 용도에 대한 필연적 욕구로 말미암아 종류도

늘고, 가공재료도 연구되어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등과 같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두 가지 혹은 그이상의 재료의 합성에 의한 화학재료도 만들어져 공예의 재료는 더욱 풍부해지고 고도화

되었다.

고대인은 나무, 돌, 동물의 뼈, 뿔, 이빨, 껍질 등 자연계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재료만을 사용하였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이들 재료를 조금씩 가공해서 점차 편리한 것을 사용하게 되고, 다음에는 자연재료를 처리해서 성질이 다른 재료를 새로 생각해 내게 되었다.

또한 야금술의 발달과 합금기술의 진보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가 생기게 되었다. 재료는 자연재, 즉 자연계에 있는 재료와 그것에다 인공을 가한 것 그리고 완전히 인공적인 것으로 화학적 및 물리적인 합성 또는 혼합으로 만들어진 것 등 3종류도 나눌 수 있다. 제 1에 속하는 것은 동식물에서 얻는 섬유 재료와 광물 등이 있어 그 범위는 넓다. 제 2에 속하는 천연물을 가공한 것은 시멘트, 석고, 유약, 유리, 금속류가 있다. 제 3에 속하는 것은 완전히 인공적인 것으로 셀룰로이드, 비닐 및 화학염료, 약품 등이 있다. 공예는 재료에 따라서 ‘일’이 구분되며 재료와 일에 의해 제품의 종류가 결정된다. 재료와 기술에 따라 구분되어진 관광공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목공예품
- ② 도자기공예품
- ③ 유리공예품
- ④ 금속공예품
- ⑤ 칠보공예품
- ⑥ 섬유공예품
- ⑦ 직조공예품
- ⑧ 죽공예품
- ⑨ 칠공예품
- ⑩ 지공예품
- ⑪ 초공예품(草工藝品)
- ⑫ 가죽공예품
- ⑬ 기타

## 2. 전국 전통공예품의 종류와 특징

### (1)나전(螺鈿)

얇게 간 조개껍질을 다양한 형태로 오려 기물의 표면에 붙여 장식한 공예품을 ‘나전칠기’라고 하며, 이러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나전장’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이 칠을 이용한 흔적

은 일찍이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여기에 자개장식을 더한 것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추정되고 있다. 나전칠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옷나무 수액인 칠과 자개이다. 자개는 전복·소라·진주조개가 주로 쓰이며,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근해에서 나는 것이 가장 곱고 질이 좋아 경남 통영지역은 나전칠기 생산지로 유명하다.

## (2) 한산모시

한산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마(苧麻)껍질을 쪼개고 이은 실로 짠 우리나라 여름철 직물이다. 특히 한산의 모시는 ‘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생길 만큼 가늘고 곱기로 유명하다 모시풀은 다년생 식물로 보통 1년에 3번 정도 수확하는데 수확 시기가 이르면 섬유가 약하고, 늦으면 올이 굵고 거칠기 때문에 8월 초순에서 하순 사이에 수확하는 모시가 제일 좋다.

## (3) 나주의 셋골나이

나주의 셋골나이는 전라남도 나주시 셋골의 무명 짜는 사람 또는 무명 짜는 일에 대한 통칭으로 그 해 처음 탄 솜으로 실을 뽑아야 셋골목이 나온다고 한다.

무명의 원료인 목화는 고려 말 문익점이 중국 원나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선 초기에는 쌀과 함께 화폐로 사용될 만큼 널리 보급되었으며, 일본으로 보내는 주요 교역품 가운데 하나였다. 예전에는 개성의 송도목과 진주의 진주목이 명품으로 유명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나주의 세목 또는 셋골목이 12승 무명으로 꼽힌다. 나주의 셋골나이는 우리 민족이 백의민족으로 일컬어지는 계기가 된 전통직물이다.

## (4) 유기(鋤器)

우리나라 유기(鋤器)의 역사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신라시대에는 유기를 만드는 국가 전문기관인 “철유전(鐵鋤典)”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더욱 발달하여 얇고 광택이 아름다운 유기를 만들었으며, 품질도 우수해 신라동(新羅銅), 고려동(高麗銅)이라 불리며 수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 귀족들이 안성에다 유기를 주문 생산하게 하면서 안성유기가 발전하게 되었다.

유기는 제작기법에 따라 방자와 주물, 반방자등으로 나뉘는데 가장 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방자유기는 일명 양반쇠라고도 하며 북한의 납청 유기가 가장 유명하다. 안성의 맞춤형유기는 ‘안성맞춤’이란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유명하여 수요가 늘자 일일이 두드려 만드는 방자기법 대신에 쇳물을 형태에 부어 그릇을 만드는 주물기법으로 만들게 되었다.

### (5) 옹기(甕器)

옹기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총칭하는 말이었으나 근대 이후 질그릇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오지그릇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옹기장은 옹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옹기는 상고시대부터 제기, 식기, 술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옹기 생산을 담당하는 와기전(瓦器典)이라는 기관을 두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지방에 100여 명의 옹기장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옹기점의 시설로는 수비장(질 좋은 흙을 얻기 위한 시설), 움(작업장), 물레(그릇제작용 받침틀), 송침(건조시설), 찬간(저장시설), 가마(그릇 굽는 시설) 등이 필요하며 가마의 형태는 경사진 곳에 길게 비스듬히 축조한 등요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식물의 저장, 발효용구로서 옹기가 필수적인 생활옹기로 쓰여 왔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과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식기재료의 발달과 주택공간의 현대화 등으로 인하여 옹기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 (6) 도자기(陶磁器)

도자기는 구워내는 온도에 따라 土器, 陶器, 磁器로 나뉘는데 백토 등을 혼합하여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사기(沙器)라고 하며, 사기장은 사옹원에서 사기를 제작하던 장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고려시대부터 천하제일 비색 청자로서 그 명성을 떨쳤으며 국가기관인 사옹원에서 제작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사옹원 분원을 설치하여 특별히 제작하였고 조서 후기에는 관요가 폐쇄되면서 사기장들이 문경, 괴산, 단양 등 지방으로 흩어져 민요가 번창하였다.

### (7) 곡성의 돌실나이

곡성의 돌실나이는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의 삼베 짜는 일로 석공의 원래 이름이 ‘돌실’이며, 나이는 ‘길쌈’을 뜻하는 말이다. 곡성의 돌실나이는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삼베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삼베는 전기 신석기시대 유적인 조개더미에서 뼈로 만든 바늘에 감긴 마사(麻絲)가 출토되어 이때부터 베를 짠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그 기술이 발달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모시와 함께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면의 재배로 삼베의 생산이 약간 줄어들기도 했다.

삼베짜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잎을 홀터 낸 삼단을 찌서 껌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삼을 쪼개 만든 실을 한 올 한 올 길게 잇는다. 그 다음 베 한필의 길이와 삼베에 따라 몇 올이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풀 먹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 베틀을 이용해 베를 짠다.

오늘날 삼베의 폭은 30~35센티미터 정도로 돌실나이가 9층, 안동포가 12층으로 짜여 지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 수록 섬세한 포가 된다. 예로부터 북포(함경도 육진), 강포(강원도), 영포(경상도),안동포(경북 안동)가 유명하다.

### (8) 금속조각(金屬彫刻)

조각장(彫刻匠)은 금속제 그릇이나 물건의 표면에 조이질을 하여 문양을 장식하는 장인으로 '조이장'이라고도 한다.

금속조각은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발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속공예기법으로 삼국시대 고분출토 금속 공예품에도 여러 가지 조각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고려시대에 크게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공장(京工匠)에 금속공예 분야를 세분하여 조각장을 따로 두고 있다.

금속 조각기법에는 평각·투각·고각·육각·상감입사 등이 있다. 평각이란 일명 음각이라고도 하는데 평면에 여러 가지 문양을 쪼아서 나타내며, 투각은 문양 이외의 부분을 정으로 쪼거나 오려 낸 뒤 그 나머지 부분은 문양에 따라 조각하며, 고각은 문양을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하는 표현기법이다. 육각은 기물의 표면과 뒤를 정으로 두들기거나 우그러서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두께 1mm 이내의 얇은 금·은·동판을 만들어 조각하는데 금속조각 가운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상감입사는 바탕에 흙을 파고 그 자리에 금·은·오동선 등을 넣은 후 빠지지 않게 다져 완성한다.

### (9) 단청

丹青은 청·적·황·백·흑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궁궐, 사찰, 사원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단청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불교의 수용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단청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유행하였으나 오늘날 까지 단청문화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단청은 먼저 단청을 올릴 바탕을 닦는 일부터 시작한다. 아교를 넣고 뭉개 끓인 물을 바탕에 바르고 가칠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하여 초지를 마린한 뒤 전체에 청록색 흙을 바르는 청토바르기를 한다. 청토를 바르는 것은 단청의 색을 고르게 먹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목조물의 풍화작용을 막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도본을 해당 면에 대고 분주머

니를 두드리면 본에 있는 송곳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무늬가 찍히게 된다. 이렇게 타분 작업이 끝나면 광물성 안료로 청·적·황·백·흑의 오색을 입히는데 각기 맡은 색만 찾아 칸을 메워가면서 단청을 완성한다.

단청은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표현할 뿐 아니라 목재의 보존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면도장으로 단순히 건물의 색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탕화 등의 불화도 포함된다.

## (10) 소목

목재를 다루는 목수 가운데 궁궐이나 사찰, 가옥 등 건축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이라고 한다. 장과 농·문갑·탁자·소반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들과 그 밖의 목공품을 제작하는 장인을 소목장이라고 한다. '소목장'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부터 나타나며, 조선 전기까지는 목가구가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을 위해 만들어 졌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 (11) 대목장

대목장은 나무를 재목으로 하여 집 짓는 일에서 재목을 마름질하고 다듬는 기술 설계는 물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목수로서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을 짓는 사람을 말하며, 도편수라고도 한다. 대목장은 문짝, 난간 등 소규모의 목공일을 맡아 하는 소목장과 구분한 데서 나온 명칭으로 외장·드잡이·석장·미장이·단청장 등과 힘을 합하여 집의 완성까지 모두 책임진다. 즉 오늘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조건축이 발달하여 궁궐과 사찰건물이 모두 목조였다. 따라서 목수에 주어진 벼슬 또한 상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목업에 벼슬이 주어졌고, 조선시대에는 60인의 목장을 선공감에 두었고, 세종(1418~1450)때 서울 남대문 재건기록에 의하면 대목이 정5품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수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가 없어졌다. 오늘날에는 사찰이나 개인의 집을 목조로 짓는 것으로 기술의 명백이 전수되어 오는 형편이다. 대목장은 그 기법이 엄격히 전승되기 때문에 기문(技門)이 형성되어 있다. 기문은 기술자로서 한 가문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기문에서의 대목장은 절대권위를 누린다. 대목장은 능력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기도 하고 기능이 향상되기도 하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 (12) 옥(玉)

옥은 동양 문화권에서 발달된 보석으로 장신구 뿐 만이 아니라 악기인 옥경과 약재 및 의료 용구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곡옥을 비



롯한 다양한 형태의 옥이 출토되었으며, 진평왕의 옥 허리띠는 신라의 세가지 보물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옥이 귀중한 장신구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옥은 왕족과 특수계층에서만 지닐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양반집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옥 장신구를 가보로 전하는 등 옥의 사용이 점점 대중화되었다.

옥공예의 제작방법은 다른 공예품처럼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갈아서 제작하는 데 이것은 옥 자체가 자연 균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과정에서 명주 천, 동물의 가죽, 박 조각으로 문질러 광택을 내어 완성한다.

옥공예의 장인은 고가의 원석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며, 여기에 정교한 조각기능이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옥 생산지로는 강원도 춘천의 옥 광산에서 출토되는 옥이 유명하다.

### Ⅲ. 강원도 관광공예품 현황

#### 1. 고문헌에 나타난 강원도 전통공예품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는 都評議使司에서 1394년 6월 23일 강릉·交州道를 합하여 강원도로 하자는 건의를 수용하여 다음해인 1395년 6월 13일부로 오늘날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합하여 강원도로 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강원도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開城府를 開城留後司로 개칭하고 楊廣道를 忠淸道로 개칭하는 등 지방제도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분리되었던 江陵道와 交州道를 하나로 통일한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배경에서 무척 어려운 일이었으나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이태조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때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통합하는 명칭을 강원도라고 하였던 것은 江陵의 江자와 原州의 原 자를 취하여 강원도라 하였으며, 강릉과 원주를 그 대상으로 하였던 것은 영동지방에서는 강릉이 비교적 큰 도시로 영동지방을 대표할 만한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영서지방에서는 원주가 비교적 큰 도시로 영서지방을 대표할 만한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도시를 규정하는 것은 대체로 평야의 넓고 좁음, 산물의 많고 적음, 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현재도 춘천·원주·강릉의 3개 도시의 시세가 상등하지만 당시에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다. 당시 영서에서 춘천보다 원주가 선정되었던 것은 우선 중앙인 한양에서는 춘천보다 원주가 교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강원도의 수부를 원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주는 1895년까지 꼭 500년

간 강원도의 수부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되었다.

18세기 강원도 26개의 府·牧·郡·縣의 관원, 군관, 관속의 총수는 3,535명이었고, 26개 군과 현의 관원, 관속, 군관의 평균수는 136명이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 26개의 府·牧·郡·縣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395년 강원도가 형성된 이후 1895년까지 500년간 변함없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1895년 이른바 甲午改革으로 조선왕조가 500년간 유지, 발전시켜온 모든 문물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중앙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제도도 개편하여 조선8도 제도를 폐지하고 23府 337郡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때 강원도도 지방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395년 영동에 江陵道와 영서에 交州道를 통합하여 江原道라 하였는데 그로부터 500년후인 1895년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인 영동지방에 강릉부를 설치하고 서쪽인 영서지방에 춘천부를 설치하였다.

한반도의 중심부로 남한의 북동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통 공예품도 주로 산지나 밭에서 생산되는 광물이나 식물 또는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생활용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전통공예품은 지역특성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가미되지 않은 소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원도 공예품의 지역별 분포는 < 표 - 1 > 과 같다.

< 표 - 1 > 강원도 전통공예품의 지역별 분포

구 분	지역별 분포
도 기	춘천, 원주, 양구, 철원, 강릉, 삼척
자 기	원주, 양구, 철원, 강릉
관 석	양양
삼 배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고성, 강릉, 삼척

(자료: 강원도(2002), 「지방 명·특산물의 발굴, 보전, 개발과 소득화 방안」, '02)

## 2. 강원도 관광 공예품의 특징 및 지역별 분포

손재영(1995)에 의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의 전체 소비액 중에서 전체의 약 30%가 관광기념품 구매비에 지출되어진다고 한다. 이는 관광객의 관광소비액 중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식음료비와 함께 관광기념품 쇼핑비가, 중요한 소비항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의 각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 공예품은 그 지역의 정

서나 특징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의 돌하루방이 설악산 관광지에서도 판매되는 등 전국의 모든 관광지에서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관광공예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관광공예품의 현실이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 지방의 특산물 및 관광공예품을 산지나 그 지방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하여 볼 때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이 산지인(83%의 임야지, 9%의 경지)강원도에서는 지리적 특성상 산에서 나는 식물이나 목재 광물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용품이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은 사용되는 공예재료에 따라 크게 목공예품, 칠공예품 도자기공예품, 연옥공예품, 석공예품, 금속공예품, 섬유공예품, 석화 공예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강원도 관광공예품의 특징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의 관광공예품은 목재와 석재를 이용한 목공예품과 석공예품, 연옥공예품, 석 공예품이 생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68개 업체로, 목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목공예업체가 37개(54%)로 수위를 나타내며, 이어 석공예11개(23%), 칠공예 7개(15%), 금속공예 4개, 도자기예 2개, 섬유공예 1개, 석화공예 1개, 기타 5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공예협동조합, 2002)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가장 많은 업체가 분포해 있는 목공예분야의 상품은 주로 장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관광공예품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주로 장식품으로 속초시와 인제군에서 소나무의 관솔을 재료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관솔목각제품과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 조각상이 강원도의 관광공예품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바둑판과 탁자, 그리고 괴목으로 만든 제품은 부피나 무게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관광공예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칠공예품은 원주시가 우리나라 옷 생산지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지역 특산물인 옷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장식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칠공예품도 장롱이나 화장대, 문갑과 같은 제품은 부피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서는 문제가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보석함이나, 찻잔, 제기, 주병, 철보단지 등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으로 강원도의 관광공예품으로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도자기예는 원주시와 홍천군에서 청자, 백자, 분청사기, 회청토기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전승공예적 제품이 대부분을 이루어 경기도 지역인 여주, 이천 등 다른 지역의 제품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석공예품은 춘천의 특산품인 연옥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루프타이, 보석함과 같은 장식품이나 철원의 현무암을 이용한 수반, 화분 등의 제품이 강원도의 관광공예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속공예품

은 춘천의 동 주방용품 이나 뻗지, 목걸이, 열쇠고리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디자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관광공예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나 강릉시의 신사 임당상이나 이 울곡상은 지역의 유명인물을 상품화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섬유공예품으로는 노리개, 자수골무세트, 자수제품 등이 있고, 석화공예로 석화병풍과 석화액자, 그리고 기타공예품으로 가죽공예, 박제공예 등이 있으나 강원도만의 특색을 담고 있는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강원도 관광공예품의 특징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다. 특히 춘천시의 연옥이나 원주시의 옷칠, 철원군의 현무암, 인제군이나 속초시의 관솔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강원도만의 특산재료이나, 강원도의 대표적 상징물이나 천연기념물 등을 제품화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의 부재와 아이디어의 빈곤, 기술부족, 공예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특징 있는 관광공예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강원도 관광공예품 제조업체 현황 및 지역별 공예품 생산품목

강원도 관광공예품 생산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목공예, 도자공예, 칠공예, 석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석화공예 및 기타공예로 나누어 지역별 업체 수 및 생산품목을 조사하여 보았다.

시·군별 업체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6개 업체로 제일 많은 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춘천시가 12개 업체, 강릉시가 13개 업체, 인제군 21개 업체, 화천군이 5개 업체, 홍천군 3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 분야별로 나누어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목공예업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인제군으로 나타났고, 칠공예는 원주시, 도자공예는 원주시, 석공예는 춘천시, 섬유공예와 석화공예는 춘천시에 많은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표- 2>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규모를 조사한 1999년의 자료를 보면 업체의 규모는 1999년 현재 총자산과 연간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3.4%이고, 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업체가 87.5%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자영업체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세성으로 인해 이들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은 생산자금의 적기 조달의 애로와, 담보부족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기피 등으로 신규차입이 어려운 점 이외에, 제품에 대한 수요변화와 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신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업체 간의 과다경쟁, 기능인력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판매실적을 보면 총매출의 76%가 국내매출(이중 42%는 도내에서, 34%는 타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24%는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강원도 공예품 생산업체 및 생산품 현황

구분	지역명	업체수	생산품 현황
목공예	춘천시	3	탈, 연필꽂이, 탁자, 장승손잡이, 현판, 가래чат상, 등나무чат상, 민속 옷, 구두솔
	원주시	2	벽걸이, 필통, 항아리, 현판, 탈, 목걸이 인형 등
	강릉시	2	나무학, 바둑판, 괴목
	속초시	2	관솔불상, 관솔주병, 관솔나상
	홍천군	2	장식장
	평창군	1	전화받침대, 괴목, 탁자
	화천군	3	복주머니, 반달곰, 바둑판, 괴목
	양구군	1	바둑판, 괴목, 탁자
	인제군	20	관솔목각, 목각인형, 파자그릇, 보관함, 목각상징물, 주방용품
	계	34	
칠공예	원주시	4	칠기보석함, 다기, 반상함, 소반, 주방용품, 칠기чат잔셀, 자개회병, 칠기화병, 고전чат잔셀
	동해시	1	자개농, 화병
	횡성군	1	제기, 다기, 잔
	영월군	1	소반, 보석함, 나전칠기
	계	7	
도자공예	원주시	2	청자, 백자, 분청사기, 회청도기
	춘천시	1	청자, 백자
	계	3	
석공예	강릉시	2	동물상, 장식품, 수석받침
	태백시	1	석탄층화석, 수지화석, 액자
	춘천시	2	연옥제품
	영월군	1	화병, 수반, 미석보석함, 동물상
	정선군	2	화병, 주병, 향로, 찻잔셋
	철원군	2	맷돌, 화분, 수반, 석등, 석탑, 하루방
	인제군	1	주병, 화병, 연적, 항아리, 돌북, 벼루
	계	11	
금속공예	춘천시	2	동주방용품, 목걸이, 뿔지, 메달
	원주시	1	칠보석함, 기념품, 장식품
	강릉시	1	신사임당상, 이울곡상 액자
	양구군	1	방자수저
	계	5	
섬유공예	춘천시	1	노리개, 사주보, 돌띠, 병풍, 가리개, 골침, 상보
	계	1	
석화공예	춘천시	1	석화병풍, 석화액자
	계	1	
기타공예	원주시	3	가족공예, 박제공예, 신부용부케
	횡성군	1	화장술
	양양군	1	화장술
	계	5	

## IV. 문제점 및 육성방안

강원도 관광공예품에 나타난 문제점은 관광공예품의 상품으로서의 문제, 공예품생산업체의 영세성, 지원기관 및 지원책의 난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 제시코자 하는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점

#### (1) 관광공예품의 상품적 가치의 문제점

강원도 관광공예품의 전반적인 특징은 목재, 관솔, 연옥 등과 같은 강원도만의 특산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재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공예품의 재료는 나무, 돌, 금속, 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만드는 관광공예품은 특색 있는 디자인 및 아이디어의 빈곤, 전문기술이나 기능의 부족, 지역상징물의 부재로 인해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고유의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비슷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제품이 너무 크거나 상품이 조잡하고, 가격이 비싸며, 포장 재료나 포장 방법도 관광객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아 관광객이 관광공예품을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특정상품이 개발되면 이를 모방한 유사한 제품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 (2) 관광공예품 생산업체의 문제점

관광공예품은 시장수요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을 투입할 수 없어서 대부분 소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업체는 영세하고, 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계화를 통한 대량제품의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나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육성방안

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에 관한 기초 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이면서도 각 지역에 맞는 관광 컨셉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지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위조사를 토대로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조사하여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공예품의 기호를 파악한 후, 각 지역의 정서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상징물과 관련된 관광공예품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관광객의 구매선택 폭을 넓혀 준다.

소량의 고 부가가치 상품과 함께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동시에 개발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공예품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 또한 관광객의 이동과 운반을 고려한 포장디자인과 기술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축제나 이벤트성 행사와 연관시켜 관광객이 주체가 되어 작품제작에 참여시킨다.

최근 주 5일 근무의 확산분위기에 따라 숙박하며 즐기는 관광 행태를 보이므로 기존의 공장제품을 판매하듯 일방적인 제품판매가 아닌 관광공예품의 제작과정 시연이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전문 관광공예품 제작자들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든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기능인에 대한 문화재 지정과 기능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도내에 있는 관련 학과와의 산학협동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의 전문교육기관이더라도 작업공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그 나름대로 관광자원이 되며 그곳서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면 더욱 활기 찬 제작 및 판매의 장이 될 것이다.

여섯째, 기존의 개념을 초월한 실질적 금융지원제도를 강구한다.

관광공예업체들은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현 제도상의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담보능력이 부족하기도 하며, 영업을 통한 상환도 쉽지 않다. 따라서 신용에 의해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거나, 받아도 별로 제작에 도움이 되지않는 규모의 지원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일곱째, 관광용 공예품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공예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들에게 세제혜택이나 무상 장기임대 등과 같은 지원과 함께 공동작업장을 구비하여 고가의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기술개발을 위한 협조와, 단지 전체를 관광상품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V. 결 론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은 교통·통신과 같은 사회 간접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도에 비해 제반 산업의 유치가 불리한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연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시도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의 전체 소비액 중에서 전체의 약30%가 관광쇼핑에 지출되어 진다고 한다. 이는 관광객의 관광소비액 중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식·음료비와 함께 관광쇼핑비가 중요한 소비항목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의 각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공예품은 그 지역의 정서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국의 모든 관광지에서 획일적인 관광공예품이 판매되어 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관광공예품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관광 공예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강원도는 목재나 관솔, 연옥 등과 같은 강원도만의 특산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재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강원도 공예품의 재료인 나무·돌·금속·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공예품은 특색 있는 디자인 및 아이디어의 빈곤, 전문기술이나 기능의 부족, 지역 상징성의 부재로 인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 고유의 관광공예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 등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제품이 너무 크거나 상품이 조잡하고, 가격이 비싸며, 포장재나 포장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공예품시장은 수요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영세하고 이로 인하여 디자인 개발이나 시설투자가 어렵고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원가는 높아 가격경쟁력도 약한 편이다.

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육성방안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원도(2006), 『江原文化財大觀』
- 강원도(2002), “지방 명·특산물의 발굴·보전·개발과 소득화 방안”
- 강원도(1998), “강원지역 경제의 특성과 개발방향”
- 강원도(1998), “향토특산품”
- 강원도(1998), “강원의 특산제품”
- 강원도교육위원회(1998), 「내 고장 강원도」, 향토교육자료집
- 김원룡(2004), 『韓國 古美術의 이해』,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화재청(2003),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 문화관광부(2002),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관광부(2000), 「공예문화상품 제작·유통실태조사연구」
- 야나기 무네요시(1993), 「공예문화」, 서울: 신구.
- 이 경성(1994), 「공예개론」, 서울: 수학사
- 손재영(1998), “강원도민예품의 관광기념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1999), “강원 영서지역 공예품 생산업체 실태조사 결과”
- 한국관광공사(2001),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문화관광부홈페이지, <http://www.mct.go.kr>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기념품 홈페이지, <http://www.esouvenirkorea.com>
- 한국관광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tri.re.kr>

# A study for promoting tourism craftwork of Kangwondo

Lee, mi-suk

## Abstract

Kangwondo has been focused on tourism resource cultivation using beautiful scenery, because it was difficult to develop large scaled industrial complex by reason of human geography.

In addi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Kangwondo has been promoting various programs for local development using tourism resource which is the more dominate than any other province.

This study will present the right way of tourism craftwork development which represents the regional emotion and character as a part of tourism and local policy of Kangwondo.

I have recognized the problems of the craftwork such as design, products and companies, and tried to find related agency, support policy and its promoting programs to solve them.

Key Words : Kangwondo tour, character, craftwork,